소아 우울과 부모의 양육 태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정신과학교실¹,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²

안지연 · 김대현 · 김정범¹ · 임지향²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chool Performance in Early Adolescence

Ji Youn Ahn, Dae Hyun Kim, Jung Bum Kim¹, Ji Hyang Lim²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sychiatry¹,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Postgraduate School of Human care, Daegu Cyber University²*

Abstract

Purpose: Parental rearing behaviors influence on children's emotional stability and cognitive development.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depressive scores, 4-6th grade (10-12 years old) children were evaluat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Methods: Depression was evaluated with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Kovacs), and parenting behavior was evaluated with modified version of the Egnä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 (Modified EMBU-C)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10-12 years old, 4-6th grade, n=357). Famil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parental education level) were included in this questionnaires.

Results: The mean scores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were 12.6 ± 7.65 . Among the subjects, 47 (13.2%) children turned out to be included in the depression group and the rest of them, 310 (86.8%) were remained as the normal group. CDI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hildren's grades ($p=0.00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grades ($p=0.031$) and maternal education level ($p=0.017$) between depression group and normal group. The children of depression group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 as more rejective and less emotionally warm. Also, CDI scor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 the cases where children answered their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 as a rejection and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a parental emotional warmth together with a paternal overprote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supports that the children's depress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ir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High levels of rejection and low levels of emotional warmth seems to related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in children.

Key Words: Depression, Child, Parenting Behavior

핵심어: 우울, 청소년, 양육태도

교신저자 : 김대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대구시 중구 달성로 56

Tel: 010-5241-3618, E-mail: dhkim@dsmc.or.kr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A102065)

서 론

소아기 우울증의 원인은 소아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사회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Park et al, 1995). 가정은 소아에게 학교나 사회에 비해 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이며, 가정 환경의 요소 중에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영향력이 누구보다 크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소아의 정신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양육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소아는 심각한 정신 병리적 상태에 이를 수 있다(Perris et al, 1994).

1979년 Parker 등은 부모와 자녀 사이 결합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인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개발하였다(Parker et al, 1979).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에 대한 돌봄 척도를 반영하는 12개 문항과 과보호 척도를 반영하는 13개 문항의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국내에서는 1996년 이현만 등이 PBI를 이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Lee & Han, 1996), 부모의 돌봄이 적거나 과보호가 많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우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돌봄과 과보호 외에도 부모의 불안적인 양육 태도가 소아의 정서장애에 특히 불안 증상 발현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Muris & Merckelbach, 1998). Modified version of the Ege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Modified EMBU-C)는 부모의 불안적인 양육태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검사도구로 1998년 개발되었다(Muris et al, 1998). 이는 부모 양육 태도를 4가지 척도로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로서, 감정적 따뜻함(emotional warmth), 거부(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 불안적인 양육(anxious rearing) 각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Muris 등에 의해 시행된 요인 분석 결과, Modified EMBU-C는 소아에게 인지되는 부모의 불안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적절한 신뢰도와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Muris et al, 2003).

우울 증상과 불안정 애착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Robert 등은 문제가 있는 부모 양육태도가 불안정한 애착을 초래하여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였고(Roberts et al, 1996), Gotlib과 Hammen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던 경우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동반으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고 하였다(Gotlib & Hammen, 1992). 2008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한 국내 연구에서 부모에게 불안적인 태도를 느끼는 소아는 불안정 애착 양상을 보였고, 불안적인 양육태도와 소아의 걱정 증상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Kang et al, 2008).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Modified EMBU-C를 이용하여 소아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고 우울 정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1개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 학생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각 학급 선생님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검사 도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2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각 검사도구의 지시사항을 읽고 답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교실에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였다. 대상자 467명 중 무응답이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110명의 설문지는 제외하고 357명이 최종 통계처리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도구

2.1. 소아우울척도 : 소아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Kovacs의 소아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바 있는 한국형 소아우울척도

를 사용하였다(Cho & Lee, 1990). 이 척도는 지난 2 주 동안의 자기 자신의 기분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으로 27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각 항목에 대하여 0~2점으로 평가되어 총 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단점을 22점으로 정해 그 이상을 우울군으로 분류하였다(Cho et al, 2008).

2.2.2.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 (Modified EMBU- C): 처음에 개발된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My memories of upbringing (EMBU)는 성인이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회상해서 평가하는 81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 도구이다(Perris et al, 1980). 그러나 기억을 회상하면서 생기는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Castro 등이 소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아용 EMBU (EMBU-C)를 개발하였고(Castro et al, 1993), 이를 다시 Muris 등이 좀 더 구조적으로 현재 소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된 소아용 EMBU를 개발하였다. Modified

EMBU-C는 총 40문항으로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정서적 따뜻함(emotional warmth), 거부(rejection), 과보호(overprotection), 불안적인 양육(anxious rearing) 이렇게 각각 10문항씩 4개의 하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가끔 그렇다, 3점=자주 그렇다, 4점=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지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점수는 10문항씩 이루어져 있는 하부요인별로 각각 합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강성구 등(10)이 Modified EMBU-C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내적 일치도를 측정할 결과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확인한 바 있는 한국어판 Modified EMBU-C를 사용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version 15.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소아우울척도 총점에 따라 우울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두 군 간에 일반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군의 일반적인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와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 분석과 분산분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Depression group (n=47)	Normal group (n=310)	p-value [†]
Sex			0.072
Boy	16 (34.0)	149 (48.1)	
Girl	31 (66.0)	161 (51.9)	
Grade			0.031
Fourth	10 (21.3)	128 (41.3)	
Fifth	15 (31.9)	77 (24.8)	
Sixth	22 (46.8)	105 (33.9)	
Family structure			0.569
Nuclear	43 (91.5)	275 (88.7)	
Extended	4 (8.5)	35 (11.3)	
Paternal education level			0.890
≤High school graduate	10 (21.3)	58 (18.7)	
College graduate	31 (86.0)	215 (69.4)	
≥Finish graduate school	6 (12.8)	37 (11.9)	
Maternal education level			0.017
≤High school graduate	20 (42.6)	100 (32.3)	
College graduate	16 (34.0)	171 (55.2)	
≥Finish graduate school	11 (23.4)	39 (12.6)	

*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 p-value by χ^2 -test.

(ANOVA)을 시행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 Tukey method를 사용하여 사후 검정을 하였다. 그 외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p < 0.05$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군은 남학생 165명, 여학생 192명이었으며, 학년 분포는 4학년 138명(38.7%), 5학년 92명(25.8%), 6학년 127명(35.6%)이었다. 가족 구조에 따른 분류상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되는 핵가족인 경

우가 318명(89.1%), 부부와 그 자녀 외에 부부의 부모나 타 친지들이 같이 사는 형태를 띠는 대가족의 경우가 39명(10.9%)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아버지는 289명(81.0%), 어머니는 237명(66.4%)이었다(Table 1).

2. 소아우울척도 점수

소아우울척도의 전체 점수는 12.6 ± 7.65 이었다. 성별,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 우울척도 점수는 4학년 10.9 ± 6.90 , 5학년 14.3 ± 8.21 , 6학년 13.3 ± 7.70 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002$). 우울군으로

Table 2. Mean scores of subscales of EMBU-C in 4th, 5th and 6th grades.*

	4th (n=138)	5th (n=92)	6th (n=127)
EMBU-C father			
Overprotection	25.7±6.1	24.1±4.7	23.1±4.5 [†]
Emotional warmth	33.5±6.5	31.5±6.8	30.3±7.1 [†]
Anxious rearing	24.2±7.2	24.7±6.5	23.2±6.6
Rejection	15.5±4.4	16.0±4.0	16.3±4.6
EMBU-C mother			
Overprotection	26.4±6.0	25.3±4.9	24.7±5.0 [†]
Emotional warmth	33.7±6.5	32.1±7.1	29.9±7.3 [†]
Anxious rearing	24.8±7.3	25.3±6.2	24.4±6.5
Rejection	16.0±4.7	16.4±4.4	17.6±5.5 [†]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

*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p < 0.001$, [†] $p < 0.05$ by Post-hoc analysis with Tukey method comparing 4th with 6th grades.

Table 3. Mean scores of subscales of EMBU-C in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Nuclear (n=318)	Extended (n=39)	p-value [†]
EMBU-C father			
Overprotection	24.6±5.2	22.7±6.0	0.065
Emotional warmth	32.1±6.8	29.8±7.9	0.049
Anxious rearing	24.1±6.8	23.1±7.2	0.387
Rejection	15.9±4.5	15.9±3.3	0.978
EMBU-C mother			
Overprotection	25.7±5.4	23.9±5.6	0.045
Emotional warmth	32.1±7.1	30.6±7.4	0.208
Anxious rearing	24.9±6.7	24.0±6.6	0.433
Rejection	16.7±5.1	16.5±3.5	0.809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

*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 by t-test.

추정된 절단점 22점 이상인 소아는 13.2%(47명)이었고, 우울군과 정상군 간에 학년($p=0.031$)과 어머니의 교육수준($p=0.017$)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Table 1).

3. 소아에게 인지된 부모의 양육태도

소아에게 인지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따라 인지된 부모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6학년 소아가 4학년 소아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느끼고 있었다($p<0.05$). 4학년 소아는 6학년 소아에 비해 어머니에게 감정적 따뜻함($p<0.001$)과

과보호적 태도($p<0.05$)를 많이 인지하였다. 또한 4학년 소아는 6학년 소아와 비교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도 감정적 따뜻함($p<0.001$)과 과보호적 태도($p<0.001$)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Table 2). 가족구조에 따른 인지된 부모 양육태도는 핵가족 소아가 대가족 소아에 비해 아버지에게 더 많은 감정적 따뜻함을 인지하였고($p=0.049$), 어머니에게 더 많은 과보호적 태도를 느끼고 있었다($p=0.045$) (Table 3).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인지된 부모 양육태도는 소아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감정적 따뜻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는 대졸 학력의 어머니와 비교하여 소아에게 인지된 양육태도에

Table 4. Mean scores of subscales of EMBU-C in parental education levels.*

	≤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 Finish graduate school
EMBU-C father			
Overprotection	23.6±4.8 (68)	24.5±5.4 (246)	24.9±5.4 (43)
Emotional warmth	30.5±6.6 (68)	32.1±7.1 (246)	32.8±6.2 (43)
Anxious rearing	23.9±6.6 (68)	23.7±6.9 (246)	25.6±6.9 (43)
Rejection	15.7±3.8 (68)	15.8±4.4 (246)	17.0±4.8 (43)
EMBU-C mother			
Overprotection	25.1±5.5 (120)	25.8±5.4 (187)	25.7±5.3 (50)
Emotional warmth	30.6±7.6 (120)	32.8±6.7 (187) [†]	31.7±6.9 (50)
Anxious rearing	24.3±6.7 (120)	24.8±6.6 (187)	25.6±7.2 (50)
Rejection	16.9±4.7 (120)	16.2±4.9 (187)	17.8±5.6 (50)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

*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

[†] $p<0.05$ by Post-hoc analysis with Tukey method comparing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with college graduate.

Table 5. Mean scores of subscales of EMBU-C in depression and normal groups.*

	Depression group (n=47)	Normal group (n=310)	p-value [†]
EMBU-C father			
Overprotection	23.4±5.0	24.5±5.3	0.191
Emotional warmth	26.4±7.1	32.7±6.5	<0.001
Anxious rearing	24.5±6.8	23.9±6.8	0.544
Rejection	17.8±4.9	15.6±4.2	0.002
EMBU-C mother			
Overprotection	25.0±5.0	25.6±5.5	0.470
Emotional warmth	26.0±7.2	32.8±6.7	<0.001
Anxious rearing	24.7±6.2	24.8±6.8	0.959
Rejection	19.8±5.5	16.2±4.7	<0.001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

*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p-value by t-test.

서 감정적 따뜻함이 더 적었다($p < 0.05$) (Table 4).

4. 우울군과 정상군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우울군과 정상군 소아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거부적 태도($p = 0.002$)와 감정적 따뜻함($p < 0.001$),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p < 0.001$)와 감정적 따뜻함($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군에서 거부적 태도가 높게 인지된 반면, 감정적 따뜻함에 대해서는 적게 인지되었다(Table 5).

5. 우울척도 점수와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계

소아우울척도 점수와 인지된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으로 인지된 경우 우울척도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 < 0.0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으로 인지된 경우도 우울척도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인지된 경우 우울척도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p < 0.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감정적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 역시 우울척도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p < 0.001$). 소아가 아버지에게 과보

호적 태도를 느끼는 경우 우울척도 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023$) (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소아의 불안정 애착 및 불안, 걱정 증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의 거부적이며 불안적인 양육태도가 소아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Modified EMBU-C의 각 척도와 소아우울척도 점수와 비교에서 부모의 거부적 척도와 우울척도 점수와는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과보호 및 부모의 감정적 따뜻함 척도와 우울척도 점수와는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소아가 부모에게서 감정적 따뜻함을 적게 인지하거나 거부적 태도를 많이 인지한 경우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불안적인 양육태도는 소아의 우울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아버지의 과보호적 태도를 많이 인지하는 소아에서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현만 등에 의해 시행된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호가 높다고 지각하는 중학생에서 우울성향이 높은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으로는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할 검사도구의 차이이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PBI는 2가지 척도가 포함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dified EMBU-C는 4가지 척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과보호 태도 척도에 대한 문항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차이이다. 선행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와의 상관없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제 2분리 개별화라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가 부각되면서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소아우울척도(CDI) 전체 점수는 12.6 ± 7.65 이었다. 이는 외국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인 Green의 평균점수 9.7 ± 7.00 , Kline의 평균점수 8.5 ± 7.75 , Friedman과 Butler의 평균점수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ubscales of EMBU-C and CDI scores.

	CDI scores	
	r	p-value
EMBU-C father		
Overprotection	-0.120	0.023
Emotional warmth	-0.493	<0.001
Anxious rearing	0.042	0.425
Rejection	0.332	<0.001
EMBU-C mother		
Overprotection	-0.066	0.216
Emotional warmth	-0.503	<0.001
Anxious rearing	0.030	0.578
Rejection	0.417	<0.001

EMBU-C: modified version of the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for children,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9.3±7.3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점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러 연구의 평균점수 12.8±4.50 (Cho & Nam, 1994), 13.8±6.40, 13.5±6.77 (Chang et al, 2001), 11.8±6.97 (Park et al, 2005)과는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들이 외국의 아동들에 비해 더 우울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자기 보고형 설문지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번안된 문항이 본래의 문항과 미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외국 기준을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문제는 CDI 뿐만 아니라 BDI, MMPI 등 대부분의 자기 보고형 검사들에 대한 한국 피험자들의 평균점수가 외국에 비해 더 높은 경향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Shin & Kim et al, 1994).

부모의 양육태도를 평가함에 있어 자기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시각이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더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인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ohner & Pettengill, 1985).

본 연구가 가지는 방법상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1개 초등학교 4, 5, 6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수, 지역, 나이 등이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무기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학교에서 담임 교수를 통하여 설문지가 배포, 회수되어 아동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으로 인지될수록,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인지되는 경향이 적을수록, 아버지에게 과보호적 태도가 적다고 느낄수록 우울정도가 높았다. 우울정도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소아를 진료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한 가족 환경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Castro J, Toro J, Van der Ende J, Arrindell WA.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assessing parental rearing styles in Spanish children with the EMBU. *Int J Soc Psychiatry* 1993;39(1):47-57.

Chang EJ, Seo MJ, Jung CH. The study of relation to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depression and parents' depression.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1;12(2):245-55.

Cho SC, Kim JW, Choi HJ, Kim BN, Shin MS, Lee JH, et al. Associations between symptoms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female adolescents. *Depress Anxiety* 2008;25:E142-6.

Cho SC, Lee YS.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0;29(4):943-55.

Cho SC, Nam M.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4; 33(6):1273-82.

Gotlib IH, Hammen CL.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s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Chichester: Wiley; 1992.

Kang SG, Shin JH, Hwang YN, Lee EJ, Song SW. Relations between worry, attachment styles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in primary school children. *Korean J Fam Med* 2008;29:854-66.

Lee HM, Han SH.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depressive trait in young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6;7(2):167-78.

Muris P, Bosma H, Meesters C, Schouten E.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Dutch EMBU for children. *Pers Individ Dif* 1998;24:439-42.

Muris P, Meesters C, van Brakel A. Assessment of anxious rearing behaviors with a modified version of "E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questionnaire for children. *J Psychopathol Behav Assess* 2003; 25(4):229-37.

Muris P, Merckelbach H.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ur and anxiety disorders symptoms in normal children. *Pers Individ Dif* 1998;25(6):1199-206.

- Park JC, Choi YS, Lee WK, Kim SH, Kim JA, Hong MH. Depression and anxiety trend according to family function in children. Korean J Fam Med 2005;26:536-43.
- Park JS, Choi YM, Lee JH. Studies on factors involved in children's dep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5;34(5):1485-90.
- Parker G, Tupling H, Brown LB.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 J Med Psychol 1979;52:1-10.
- Perris C, Arrindell WA, Eisemann M.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Chichester: John Wiley & Sons; 1994.
- Perris C, Jacobsson L, Lindstrom H, von Knorring L, Perris H.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 Scand 1980;61(4):265-74.
- Roberts JE, Gotlib IH, Kassel JD.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 Pers Soc Psychol 1996;70:310-20.
- Rohner RP, Pettengill SM.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 1985;56:524-8.
- Shin MS, Kim MK. Assessment of childhood depression.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4;5(1):12-27.

논문투고일: 2012년 5월 30일

논문심사일: 2012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5일